

美 日 特許法 改正 합의

美 先發明주의 포기, 양국마찰 완화

美日특허청장관은 20일 도쿄에서 비공식회담을 갖고 양국이 特許法을 改正, 特許마찰을 완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요미우리(讀賣)新聞이 보도했다.

이회담에서 미국측은 「特許를 얻은후 17년간」으로 돼 있는 특허인정기간을 「출원후 20년간」으로 바꿔 기준의 「選發明주의」를 「先出願주의」로 전환키로 동의했다.

미국측은 ▲特許인정기간 개정안을 6월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고 ▲개정법은 제정후 6개월이내에 실행에 옮겨 모든 出願에 적용하며 ▲현재 심사중인 특허의 기간은 出願일부터 계산한다는 등에 동의했다.

또 일본측은 오는 95년 7월 1일까지 特許法을 개정, 2개월이내에 번역문제출을 조건으로 영어로도 特許出願을 받고 일정기간 동안은 번역문의 정정도 인정키로 하는 등 「先出願주의」를 보완키로 했다.

이에따라 특허인정방식 차이로 인한 美日간 분쟁은 앞

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업계는 「先發明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이 이미 일반화된 기술에 대해 어느날 갑자기 거액의 특허사용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불평해왔다. 전자화상 해석기술의 경우는 미국에서 출원 후 38년만에 特許가 인정돼 같은 기술을 개발해 사용하고 있던 일본과 독일업체들이 연간 1억달러씩을 물게 되기도 했다.

또 미국측은 연간 2만건씩의 特許를 일본에 신청하고 있으나 내용을 일본어로 번역하는 사이 일본업체가 이를 가로채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해왔다.

에스토니아, WIPO협약 가입

에스토니아는 93년 11월 5일 WIPO협약에의 가입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2월 5일 同협약의 새로운 가입국이 되었다.

온두라스, 파리협약 가입

93년 11월 3일 파리협약 가입 비준서를 기탁한 온두라

스는 2월 4일자로 파리협약 가입국이 되었다.

엘살바도르, 파리협약 가입

엘살바도르 정부는 93년 11월 18일 파리협약 가입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2월 19일자로 同협약 가입국이 되었다.

유고슬라비아, 헤이그협정 및 부다페스트조약 가입

유고슬라비아는 지난 93년 11월 25일 헤이그협정가입비준서를 기탁, 同年 12월 30일자로 새로운 가입국이 되었다.

또한 지난 93년 12월 25일에 부다페스트조약 가입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2월 25일로 가입국이 되었다.

쿠바, 부다페스트조약 가입

쿠바정부는 지난해 11월 19일 부다페스트조약 가입비준서를 기탁하여 2월19일자로 同조약의 새로운 가입국이 되었다. <WIPO 「Industrial property」 12월호> <♣>